



## 올해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자

올 나라를 들끓게 했던 4.15 총선이 끝났다. 원래 선거가 그러하듯이 영원한 승자도, 영원한 패자도 없다. 왜냐하면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될 수도 있고,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.

중요한 것은 그 저변에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.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,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. 나라와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다름아니다. 나라와 국민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.

그것은 국민들의 뜻을 깊이, 잘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.

어항에 국한하여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태풍기 이전에 어항공사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일이 해당될 것이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태풍기는 대체로 일정한 계절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공정을 펼쳐 나갈 경우 극단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지난해 우리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무려 2조7천억원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. 자연의 재해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처절하게 느껴졌을 것이다.

중요한 사실은 그걸 모두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속수무책, 손을 놓고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.

당시 남해안 작은 섬의 한 공무원이 밤새도록 동네를 돌면서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말 거짓말같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않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.

바로 그것이다. 철저한 예방이야말로 그 어떤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.

다행히 올해 국가어항공사가 조기발주 방침에 따라 1~2

개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거니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. 바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이나 정책이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.

물론 이런 좋은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어항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행정을 펼친다는 칭찬밖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.

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놓는다면 이는 태풍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.

최근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기상 위성에서 보내오는 구름 사진 등을 통해 태풍의 발달과 소멸상황 및 이동경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.

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둔다면 어이없는 천재는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항공사의 주요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물론이다.

사실 어항공사는 어항인과 어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 말고도 국가기간산업 확충이란 대명제를 생각할 때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. 이를 뒤집어 생각한다면 만약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면 작게는 이를 시공하는 어항인들이 외형적인 손실을 입게 되지만 궁

극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인 것이다.

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액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예산을 떠올렸을 때 그 피해액이 얼마나 큰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런 피해를 1~2개월 빠른 조기발주로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둬으로써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 동안의 관습이나 관례 좁은 큰 장애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.

물론 하늘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모든게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. 그러나 적어도 '그때 이것을 요만큼만 더 해놓았다면 저런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걸' 하는 그런 후회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. (어촌어항소식)

